



최재상 마티아 신부 作

성전 정화

오늘 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요한 2,16) 타락시킨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섬뜩하게 전해집니다. “누구든지 거룩한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자를 파멸시키실 것”(1코린 3,17 참조)이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면 “하느님의 성전”(사도 바오로)인 우리 인간과 “하느님의 발자취”(마이스터 에카르트)인 모든 피조물의 집이자 “우리의 어머니”(교황 프란치스코)인 지구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일은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지구는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지구는 우리가 부모에게서 받은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잘 보호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서 되돌려 주도록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빌려준 자산입니다.”(프란치스코, ‘2015년 아이디어 엑스포’ 영상 메시지 중에서)



생태 위기는 신앙의 위기이다

기후 위기, 생태적 위기에 관해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정치적 이슈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무관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시급한 사회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기후 변화, 환경 보호 같은 배부른 소리를 하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후 문제나 생태적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는 일반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유명 통계 센터인 퓨 리서치 센터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자, 인종적으로는 백인, 종교적으로는 그리스도교 근본주의자들이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호주의 한 추기경은 “과거에 이교도들은 변덕스럽고 잔인한 신들을 달래기 위해, 동물은 물론 심지어 인간 까지도 희생시켰지만 헛된 시도였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환경주의가 위험한 종교 교리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교황 프란치스코의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반포되었을 때, 회칙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교회의 어느 고위 성직자의 왜곡된 생각이라고 일축할 수는 없습니다. 일명 ‘샤이 기후 부정론자’들도 교회 내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기후 변화를 교회에서 굳이 이야기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교 신앙이 기후 변화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1970년대 이후, 교황님들의 각종 회칙과 담화문 곳곳에서 등장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 회칙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창세기에서도 이와 연관시켜 볼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로 죄를 짓게 되는데, 이때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창세 3,17)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죄는 인간만을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의 생존 배경인 땅도 저주받게 한 것입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타락하게 됨으로써, 인간을 둘러싼 환경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약성경의 서간문은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로마 8,21-22)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과 자연은 상호 연결되어 있기에, 어느 한쪽만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며, 어느 한쪽만이 구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아무도 혼자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당신의 회칙과 글을 통해 강조하십니다.(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19항 참조.)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당신의 교황 즉위식에서 “내적인 광야가 엄청나게 넓어져서 세계의 외적인 광야가 점점 더늘어가고 있습니다.”(베네딕토 16세, 즉위 미사 강론 중.)라고 하신 말씀은 인간의 영적, 윤리적 문제가 어떻게 외부의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내적 문제는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자기 내면에 있는 하느님의 자리와 도덕성을 내치고 황폐시키게 될 때, 결국 그 내적으로 황폐함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하느님 것을 인간이 소유하려는 것이었고, 하느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고자 했던 불순종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를, 지금의 인류 또한 같은 방식으로 더 폭력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인류가 범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하느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마음대로 약탈한 권리가 부여된 주인과 소유주를 자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죄로 상처 입은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폭력은 흙과 물과 공기와 모든 생명체의 병리 증상에도 드러나 있습니다.”(『찬미받으소서』, 2항.)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높은 법정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피조물의 착취가 시작”(『찬미받으소서』, 6항.) 된다고 말씀하시며, 현재의 기후 위기, 생태적 위기가 그저 자연 현상이나 사회적인 이슈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과 관련된 문제임을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만물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 고백과는 무관하게 되어, 인간의 이익을 위해 파괴되고 위기에 처한다면, 우리가 입에 올리는 구원을 위한 회개라는 말조차도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금 인류가 마주한 기후 위기, 생태 위기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작은형제회 김석찬 호노리오 신부

샌디에고 *Fransiscan School of Theology* 대학원, *Master of Arts*

『프란치스코 전통 안에서 생태적 회개 고찰』

탄소 발자국^{2019*}을 줄입시다!

*글자체: 빙하체, '노타입' 개발, '글자 축'을 활용해 북극해 빙하가 녹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번주 빙하량연도는 2019년입니다.

실천사항 3 재고하기_Rethink

'몸에 좋은 소고기'의 불편한 진실

소고기가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



경계없는 학교
카우스피라사: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소고기에
관한 음모와 불편한 진실



미국 소 목장 한 곳의
메탄*가스 발생량

*메탄(CH₄): 이산화탄소보다 23배 온난화 영향



연 15,400가구
전력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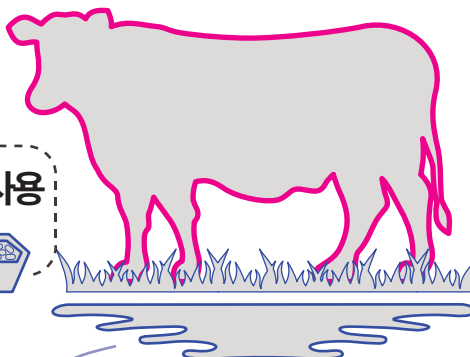
하루 메탄*가스 발생량
100~500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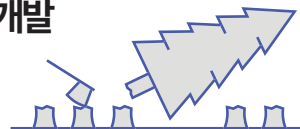
UN 식량농업기구(FAO)는
기후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축산업을 지목



전 세계 생산 곡물 50% 동물 사료로 사용
→ 기아 급증(10억명)



브라질 산림법 통과 후,
아마존 밀림을 가축
방목지와 사료 재배지로
개발



기존 생태계 파괴
원주민 생활 터전 상실

1년 동안 12,000,000,000,000L
[축산업을 위해 미국에서 사용하는 물]

함께! 지켜요, 금육재

사순 시기 금요일에는, 우리를 위해
고통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금육재를 꼭 지켜 봅시다.

1. 제철채소 섭취하기

- 쑥, 달래, 냉이 등으로 요리하기

예) 쑥떡, 달래장, 냉이 된장국 등

2. 대체육 이용하기

- 콩고기, 배양육 등을 이용하여 요리하기



다시! 생각해요 :)

친환경쇼핑하기

1. 커피, 초콜릿 등을 구입할때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으로 만드는 '공정무역제품'
확인 후 구입하기
2. 온라인 주문 전, 직접 살 수
있는지 찾아보기

